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** **media@klpga.org**

**우승자 고지우 공식 인터뷰**

**KLPGA투어 54홀 역대 최소 스트로크[193타(-23)] 타이 기록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27일(금) ~ 6월 29일(일) |
| 3 | 장 소 | 버치힐 [HILL(OUT) / BIRCH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㈜일화, 모나 용평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42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현경, 노승희, 이예원, 홍정민, 이동은, 이가영, 방신실, 김민선7, 정윤지유현조, 김민주, 박보겸, 고지우, 이소영, 임희정, 최예림, 김시현, 정지효서지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3R 5언더파 67타, 최종합계 23언더파 193타 우승자 고지우(경기 종료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2>

**※ 고지우 이번 대회 관련 기록**

 **-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코스레코드 경신(2라운드 10언더파 62타 / 김민별과 공동)**

\*종전 기록: 최혜진 9언더파 63타(2017년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최종라운드)

=><https://data.klpga.co.kr/history_score_3th_1.jsp>

 **- 대회 36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 경신: 126타(-18)**

\*종전 기록: 이가영 131타(-13. 2021년 맥콜 ·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)

 **- KLPGA투어 역대 36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 경신: 126타(-18)**

\*종전 기록: 조정민 127타(-23, 2018년 제8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-2R)

=> <https://data.klpga.co.kr/history_score_1th_2_3.jsp>

 **- KLPGA투어 역대 54홀 최소 스트로크 타이 기록: 193타(-23)**

\*종전 기록: 조정민 193타(-23, 2018년 제8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)

=> <https://data.klpga.co.kr/history_win_3th_9.jsp?selectEventType=RE&selectYear=2025&selectHole=3>

 **- 와이어투와이어 우승: 2025시즌 네 번째, 역대 112번째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기록**

=> <https://data.klpga.co.kr/history_win_2th_3.jsp>

**[고지우 코멘트]**

**우승 소감? 9번 홀 보기 상황은?**

진짜 꿈꾸는 것 같고,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.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9번 홀 보기 나왔을 때는 크게 아쉬움 없었고,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었다.

**예전에도 우승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?**

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다.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, 주변에서 함께 해준 분들 생각이 나면서 울컥했다. 대회마다 기를 쓰며 진심을 다하다 보니 기쁠 때도, 아쉬울 때도 눈물이 나온다.

**3일 내내 컨디션은 어땠는지?**

3일 내내 컨디션과 샷감 다 비슷했다.

**16번 홀 기억이 많이 나는지?**

2년 전에 우승했을 때 16번 홀에서 위기가 있었는데, 파로 잘 막았었다. 이번 대회 프로암 때 식당 직원분이 ‘16번 홀이 고지우 홀’이라고 말해줬는데, 티 샷할 때도 그 생각이 많이 났다.

**54홀 최소타 기록 신경 썼는지?**

신경 안 썼다.

**올해 목표는?**

다승왕이다.

**다승왕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?**

예전에는 악으로 깡으로 골프를 해왔다. 우승하고 나면 지쳐버리고,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성적이 잘 안 나왔다. 올해는 힘을 빼고 편하게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연습했고, 이번 대회에서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. 이제는 나를 갉아먹는 습관을 내려놓고, 즐기는 골프를 하고 싶다.

**다승을 위해 준비한 건?**

지금 와서 새로운 준비를 할 수는 없다. 시즌 전에 이미 준비는 마쳤다고 생각한다.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다. 대회가 끝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,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대회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.

**잘된 것을 기억하는 스타일인가, 안된 부분을 고치는 스타일인가?**

원래는 안된 걸 계속 끄집어내고 고치려는 스타일이었다. 하지만 지금은 잘된 것을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